

“개벽직전 괴질발생” 예언 적중(?)

코로나 바이러스 위세가 대단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에서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신천지라는 종교집단에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포되었다고 한다. 특히 대구신천지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되어 지역사회로 전파되고 그 중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감염을 통제하기 위해 초중고학교 개학을 23일로 다시 연기하였고, 방학·집콕을 권유하고 있다보니 소비가 얼어붙고,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초조해 하며 감염 공포로 일상이 얼어붙은 것 같다.

개벽 직전 나타난다는 괴질

코로나19의 위세가 대단하자 여러 선지자들이 개벽 직전 괴질이 휩쓴다고 예언을 해놓았으므로 혹시 코로나19가 그 괴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강증산 선생은 “괴질은 한국에서 처음 발병하는데 병겁이 광주, 나주에서 발생하면 전라남도도 어육지경(魚肉之境)이요, 군산에서 시발하면 전라북도도 어육지경이요, 인천에서 시발하면 온 세계가 어육지경이 된다(道典7:41)”라고 말했다.

또한 조희성 구세주께서도 “이제는 걸어가다가 그냥 퍽퍽 쓰러져서 죽는 시대가 온다. 조금 있으면 마귀가 전멸되는 것을 알고 마귀가 한 생명이라도 삼켜버리고 같이 죽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는다. 십 리에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는 때가 온다고 격암유록에



써어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시체가 산더미같이 쌓인다고 그랬다. 격암유록에는 세밀하게 써어 있다. 피가 시커멓게 되면서 응고가 되어 굳어버리니까 심장마비로 뻘어서 죽는다. 그런 시대가 꼭 오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가 나타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2000.10.24. 말씀)라고 하셨다.

아침에 괴질에 걸려 저녁에 죽는다는 예언으로 보아 현재 코로나19는 위에 예언된 괴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개벽 직전 오는 괴질에는 약이 없고 오직 마음을 닦아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만 살아남는다고 하니 괴질의 발생을 예의 주시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닦고 닦아 마지막 괴질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괴질 직전 3년간 흉년든다
격암유록에는 말세에 삼년간 흉년이 들

고 2년간 괴질이 든다고 예언되어 있다. 이때에 치사율이 매우 높은 이름 모를 괴질이 돌아 인류의 10분의 9가 멸망한다고 한다. 관련 예언을 해석해 보자.

三年之凶 二年之疾 流行瘟疫萬國時에 삼년지흉 이년지질 류행은역만국시 3년간의 흉년 또는 흉한 일과 이년간의 괴질이 유행하는 돌림병이 만국을 휩쓸 때에 吐瀉之病 喘息之疾 黑死枯血 無名天疾 토사지병 천식지질 흑사고혈 무명천질 朝生暮死 十戶餘一 조생모사 십호여일 위로 토하고 아래로 설사하는 병과, 피가 굳어져서 까맣게 타서 죽는 이름 모를 천질(天疾)로써, 아침에는 살아 있으나 저녁에 죽으므로 열 집에 한 집만 살아남겠구나(격암유록 가사총론歌辭總論).

위의 예언에서 보듯이 조생모사하는 괴질이 돌기 전 3년간 흉년이 든다는 것도 개벽 직전 괴질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흉년은 글자 그대로 농사를 망치는 흉년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짐작컨대 경제가 매우 어려워져 국민들이 먹고살기 어려워진 것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다.

박멸소탕 기도로 괴질 범접 못해
이렇게 무서운 괴질이 돌 때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가. 격암유록에는 구세주(정도령)가 창안한 마귀를 죽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예언하고 있다. 마귀 죽이는 기도, 즉 멸마경(滅魔經)을 외우면 괴질이 없어진다는 예언이다.

當服海常講經 萬佛皆消海印일세 당복해마상승주 만과개소해인 인류의 어머니 구세주(정도령)님께서 복종하고 정도령님이 가르쳐 주신 나라의 마귀 마음을 없애주는 기도를 항상 하면서, 해인(海印)을 받아먹어야 모든 악한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예언이다.

혹자들은 괴질을 어떻게 주문같은 것을 외워서 박멸할 수 있다고 하는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직접 한번 외워보시라. 박멸소탕 기도(멸마경)는 그냥 평범한 기도나 다름없다. 구세주께서 마귀 죽이는 영력(靈力)을 글자마다 불어넣은 기도이다. 마음먹는 대로 되는 때이다. 이 기도를 외울 때 구세주 분신이 오셔서 마귀를 죽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언제 마귀가 괴질을 일으킬지 모른다. 밤낮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여 괴질에 걸리는 불쌍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79> “오십 평생을 통해 이긴자가 될 수 있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될 사람들이 될 로 오기만 하면 되는데도 힘들다고 불평 그리 망설이는가.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죄악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는가. 세상에 집착된 마음을 하루빨리 끊고 이긴자의 말씀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은 오십 평생을 통해 이긴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긴 뜻대가 나온고로 이 사람이 가르쳐 주는 대로 오기만 하면 되는데도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 것이다.

이 사람은 억만 번 사경을 헤매는 일을 당하여 겨우 걸어난 길인데, 그 만분의 일도 고통을 당하지 않고 쉽게 공짜로 영생을 얻으려는 여러분들을 볼 때 참으로 기가 막히는 것이다.*

행복한 노년 준비

코로나19 해결, 결국 내 몸 안의 면역력

인류가 생존한 이래, 항상 바이러스의 위협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내 몸 안의 저항력과 면역력이 얼마나 외부의 바이러스에 내성이 있는가입니다. 우리 몸 안의 면역력과 저항력, 치유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피입니다. 피가 얼마나 맑고 깨끗하는가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아무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기세 높은 이 때에 앞 호에 이어서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피의 3가지 주요 기능 중 ‘운반 기능’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피는 우리 몸 안 10만km에 이르는 혈관을 따라 쉬지 않고 이동하면서 모든 세포에게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 호르몬을 공급하며, 세포활동으로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배출하게 하여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 줍니다. 이처럼 우리 신체의 최소 단위인 세포 하나하나에 에너지 공급과 노폐물의 배출을 담당하는 운반 기능이 문제가 생긴다면 건강에 이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놀랍게도 심장을 떠난 피가 임무를 마치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데는 채 1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신속성과 정확성 효율성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그 피가 탁하고 걸쭉해지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그 순기능을 미치지 못하는 역부족인 것입니다. 피의 운반 기능의 역할이 제대로 숙지되면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상처가 날 때 피의 손실을 막으며, 체온을 조절하는 것도 피의 몫입니다. 피속에는 적혈구는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산소를 모든 세포들에게 운반하며, 세포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허파로 운반하여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합니다. 또 백혈구는 온갖 종류의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정상세포가 변질되어 만들어진 암세포를 파괴합니다. 혈소판은 피를 엉기게 하여 피의 손실을 막으며, 혈장은 혈관을 따라 혈액세포들과 영양소, 노폐물, 화학물질을 이동시킵니다. 이 기능이 항상 유지되려면 피가 맑고 깨끗해야 합니다.

사람은 혈액의 흐름이 중단되어 이러한 기능이 멈추면 몇 분을 버티지 못하고 죽습니다. 어떤 세포가 얼마나 기능을 못하느냐에 따라 문제의 종류와 심각성이 달라집니다. 적혈구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므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쉽게 피곤해지며, 졸리고, 숨이 가쁜 증상이 나타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놀랍게도 전 인류의 24.8%인 16억 2천만 명이 적혈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빈혈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또 면역세포인 백혈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면 각종 세균으로부터 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므로 감기나 독감을 비롯한 다양한 세균감염으로 인한 질병과 암에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2018년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1위인 암과 3위인 폐렴은 약한 면역력과 관련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마스크나 손 세정제가 아닙니다. 물론 바이러스 확산 예방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피를 무엇으로 맑고 깨끗하게 하여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이 코로나19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주호 기자

단(檀)은 하나님을 모신 우리의 조상이었다

말하고 있는데 조희성이란 분이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던 사실이 하나 더 있다. 우리 사람더러 본래의 신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던 일이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었습니다” 소나무는 소나무이고 사람은 사람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 인간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 왔는데 정말로 입이 벌어질 말씀이었다. 이제, 단군의 할아버지(환인)가 하나님으로 묘사된 단군신화를 잘 생각해 보면 굉장한 추론이 떠오른다. 비와 구름과 바람을 제 마음대로 조정했던 단은 하나님의 신을 모신 우리의 조상이었다. 그리고 조희성님 역시 하나님의 신을 모셨던 분이었기에 태몽을 먹고 여름장마를 먹고 풍년을 들게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신을 모시면 누구나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그분의 말씀이 귀가에 쟁쟁하다.* 승리제단 후주부서 책임이사 안종영(James Ahn)

그러나 언제인지도 모르게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은 배고픔으로 허덕거렸다. 압제자와 그 추종자 몇몇을 제외하고 가난을 대물림 해왔다. 춘궁기(春窮期), 허기진 배를 움켜지고 간신히 모심기를 하고나면 여름장마로 인해 다 떠나려가고 가을태풍은 삶의 희망마저 저 멀리 날려버렸다. 그래서 일어설 힘조차 없이 산골짜기에 조용히 파묻혀 살았기에 은둔의 국가로 불리웠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1981년 승리제단을 막 일으켜 세우던 때 조희성이란 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이상한 주장을 했다. “본인이 태몽을 맞았다. 여름장마를 막

비 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산백예순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삼천 만 한결같이 지킬 언약 이루니 옛 길에 새 걸음으로 발 맞추리라 이 날은 대한민국 역만 년의 터다 대한민국 역만 년의 터

위의 글은 우리가 잘 아는 제헌절 노래 가사다. 위당 정인보 선생이 지었다. 우사(雨師) 운사(雲師) 풍백(風伯)을 거느리고 인간을 이롭게 했다는 국조(國祖), 단군을 묘사한 것이 틀림없다. 비와 구름과 바람을 좌지우지하였으니 가을이면 곡식이 잘 매달리어 황금들판에 풍년이 들었음을 짐작케 한다. 세월이 너무 오래전이라 단군이란 인물이 어떤 분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풍년으로 인해 백성들이 배 두드리며 태평성대를 노래했으리라.

본부제단 2월 성적 1등 5지역 개인 1등 석선자 권사

- 2등: 6지역(지역장: 안병천, 지회장: 석선자)
 - 3등: 4지역(지역장: 박명하, 지회장: 이영애)
 - *구역 1등: 44구역(구역장: 이수영)
 - 2등: 53구역(구역장: 석선자)
 - 3등: 15구역(구역장: 김혜선)
- 본부제단(신도회장 윤봉수)에서는 3월 3일, 2월 성적 발표 및 시상식을 개최 하였다.
- *지역 1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 *개인 1등: 석선자 권사
 - 2등: 이수영 권사
 - 3등: 이숙정 권사*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점령하는 과정을 담은 책

하나님은 당신을 점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책을 읽기 원하는 분들은 주소를 적어서 아래의 번호로 문자 또는 이메일 주시면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도서출판 해인 담당자 010-3019-1440, bookman5@naver.com